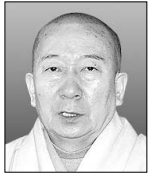


일주문



남북나눔공동체 이사장
현대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1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 기념홀에서 열린 '가정'남북나눔공동체'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에서 이사장 선출했다.



남아시아 돕기 자비의 탁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월 25일 서울 종로산 묘각사에서 종로까지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였다.



법상종 정기임원회의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2월 1일 평택 유가사에서 총무원 이전 법회 결과 보도 등을 안건으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6.15 남북행사 공동대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은 1월 31일 오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 남북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자이툰부대 군승법사로
35사단 정연태 군승법사(대위)는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 자이툰부대 군승법사로 선발돼 2005년 2월 활동에 들어갔다.



무주 백련사서 신년법회
대구경북 불교연인회 송병국 회장은 1월 29일 무주 백련사에서 회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 수련법회를 봉행했다.



불기협 정기총회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 김원우 회장은 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동산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02722-4162)

“경제·사회정의 실현이 정토구현”

경실련 공동대표 맡은 법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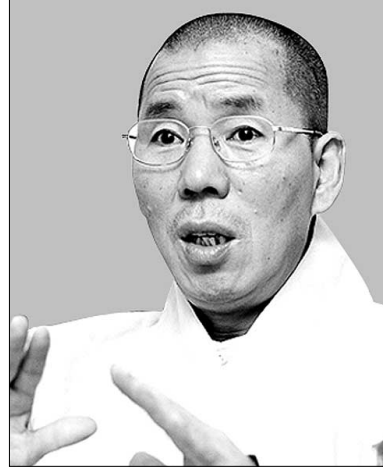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구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감시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최근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이하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후원 서울대 교수와 공동대표로 선출된 법등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사진)은 부처님의 통제대비 사상이나 생명존중 사상과 경실련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표가 상통해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등 스님은 지난해 12월 구미 경실련 대표로 선출했다.

“개인 소견이지만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이나 시비를 입상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도 시민사회단체의 몫이지만 이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제중간 지역간 이념간 분열된 사회를 아우르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등 스님은 경실련은 중앙을 비롯해 각 지역 단위로 구성돼 있는 만큼 하나의 대원칙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펼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나 환경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대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스님들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펴는 것입니다.”

법등 스님은 1961년 김천 직지사사에서 출가해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 지킴이 운동 확산 주력

신라문화원 초대이사장 진철 스님



“밀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밀뿌리가 튼튼해야 꽃을 많이 피

울 수 있습니다. ‘세계화’라고들 하지만 한국이란 뿌리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1월 28일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신라문화원 초대이사장에 취임한 진철 스님(사진). 스님은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바탕을 마련하고 활동의 폭을 키워 신라문화를 전승해 21세기 새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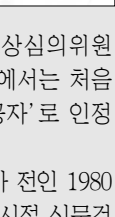
스님은 각종 강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스님은 1964년 월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 4, 5, 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통도사 선덕이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민주화 유공자 인정 받아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사진)이 1월 16일 ‘민주화 운동관련 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지광 스님은 출가 전인 1980년 한국일보 기자 시절 신문검열 철폐, 비상계엄 해제 등을 외치며 전국적인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주도해 강제해직 당했다. 지광 스님은 “민주화 운동의 역군에게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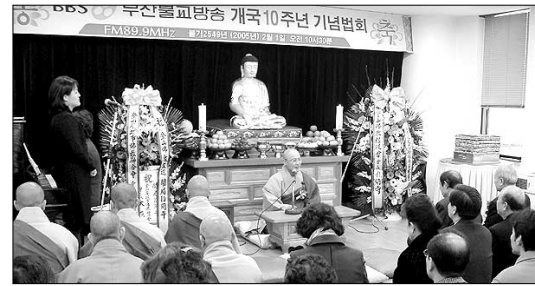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이 1월 2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우선주 씨(대상) 등 수상자들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동국대 교수 법산(심사위원장), 태고종 사회부장 백은,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총회종 총무원장 현오 스님과 진흥원 최명준 국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은 2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아 방송국내 법당에서 개국 기념법회와 축하 리셉션을 갖고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법회에서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대성 스님은 “부산, 경남 지역 4백만 불자들에게 정법을 전하는 방송 포교의 선봉이 돼 달라”고 법문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회장 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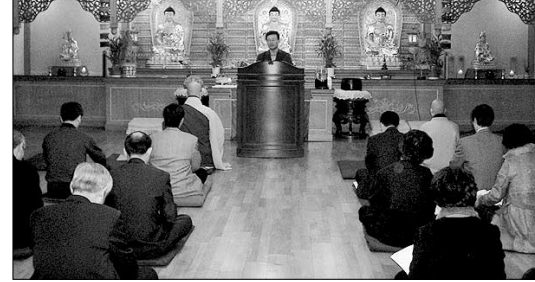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현일환)는 1월 29일 서울 구룡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및 13·14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대불청 서울지구는 2005년 연꽃노래잔치, 사찰체험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일 넷째주 일요일은 봉사활동의 날로 정해 보시행을 하고 있다.

구미불교대학 이전 개원법회



구미불교대학(학장 법등)이 구미시 봉곡동에 학사를 마련했다. 1월 30일 열린 화엄탑사 개사 점안 및 구미불교대학 이전 개원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직지사 조실 녹원, 주지 성용 스님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가했다.

국제포교사회 신년법회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1월 29일 서울 불광산사 법당에서 신년법회 및 9기 국제포교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김봉래 회장은 “국제포교사회가 올해로 창립 7년을 맞아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업 외에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 선구자·불교학 거장 민영규 교수 별세

한국학의 선구자 서여 민영규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2월 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유족으로는 아들 기식 씨와 세 딸이 있다. 191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배재학당과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일본 다이쇼(大正)대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고인은 1945년부터 35년간 연세대 사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고인은 연희전문 재학시절 위당 정인보의 가르침을 받아, 조선 양명학파인 강화학회의 맥을 이었고, 연세대 내에 동방학연구소와 국학연구원을 설립해 한국학 발전에 기여했다. 불교학에 밝았던 고인은 ‘선묘와 의상대사(1953·사상계)’, ‘원효론(1953·사상계)’, ‘석

굴암 조상의 교리배경(1961·고고미술)’, ‘장곡사고려철불복장 유물(1966·인문과학)’, ‘일연종편조종오위론(1979·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저서 <사천강단>에서 고인은 신라 무상 스님과 마조 스님의 관계를 규명해 한국과 중국선종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등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여인극장’ 강유정 대표 별세

불자 연극연출가이자 극단 여인극장 대표 강유정(73·사진)이 2월 1일 서울 청구 성심병원에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임재준 씨 등 1남 2녀가 있다. 독실한 불자집안에서 태어나 1955년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강 씨는 30년 이상 서울 철보사를 다닌 불자이기도 하다. 강씨는 1966년 국내 최초의 여성정극극단인 여인극장을 창단, 활발한 극단활동을 펼쳐왔다.



이은비 기자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지사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락처. Lists regional offic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약정해지 지사장 공고 - 대전지사 류재희 지사장 - 전북지사 조기식 지사장
위 2개 지사장을 2005년 1월 31일자로 약정을 해지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신규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10년의 첫 해를 맞아 지역 포교사를 모집합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불교계 언론을 선도하는 가장 믿음직한 포교자인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지역 포교소식을 정성으로 알리는 불교홍포에 앞장서실 활동적인 지사장님을 모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 맛을 생활 속에서 되살려내는 정상의 신행 포교자인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1) 신규 개설 모집 지역: 충남/대전, 강원권, 울산/경주/포항, 제주권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사업 전개. - 본사 주최 수의 사업활동 진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 활동계획서, 추천서(사암연합회장 또는 교구 본사급 주지스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제출기한: 2005년 3월 6일(토)
- 제출방법: 우편(3.6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방문 접수.
4) 제출처: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문의전화: (直) 02) 737-0090 (代) 02) 737-8881 팩스: 02) 737-0697